연예뉴스 HOT 3

음원사이트 멜론, 실시간 차트 폐지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이 실시간 차트를 폐지한다. 카카오는 19일 "1시간 단위로 재생량을 집계하는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24시간 기준 집계 방식의 새 순위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곡당 1인이 1회 재생하는 횟수를 집계해 1시간마다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다. 카카오 측은 "곡의 순위와 등락 표기를 없애고 차트 집계 기준을 변경하여 순위 경쟁보다는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음악과 트렌드를 발견하고, 감상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기자 송재림-가수 지연, 열애설 부인

연기자 송재림과 가수 지연이 19일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했다. 송재림의 소속사 그랑앙세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두 사람은 2019년 9월 종영한 KBS '너의 노래를 들려줘'를 통해 만났고, 바이크라는 공통의 취미를 가진 친한 선후배 사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열애설의 근거가 된 목격담도 "당시 송재림이 강원도 태백에 위치한 서킷에서 바이크 연습을 했고, 이제 막 입문한 지연이 동행했다가 오해를 낳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연의 소속사 측도 "친한 동료 사이"라고 열애설을 부인했다.

박진영이 만든 트와이스 새 앨범 6월 발표

걸그룹 트와이스가 박진영과 또 한 번 호흡을 맞춘다. 19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6월1일 발표하는 트와이스의 새 앨범 '모어 앤 모어'의 타이틀곡을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가 작사, 편곡했다. 박진영은 그동안 '왓 이즈 러브?', '시그널', '필 스페셜' 등 트와이스의 히트곡을 만들었다. 박진영 외에도 영국 출신 작곡가 엠넥(MNECK)을 비롯해 가수 겸 작곡가 자라 라슨, 저스틴 비버 등 다수 팝스타와 작업한 작곡가 줄리아 마이클스, 저스틴 트랜터 등이 타이틀곡 작곡과 편곡에 참여했다.

원픽! 위클리 핫플레이스

아이유가 거니는 그 곳 '사려니 숲길'



아이유와 만나면 뭐든 그 이상이다.

아이유가 새롭게 모델로 나선 한 생수 광고가 일석삼조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아이유의 맑고 생기발랄한 매력이 생수의 이미지와 맞아떨어지면서 CF 본연의 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광고 속 의상부터 배경 장소까지 모든 게 화젯거리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받는 아이유의 매력이 어김없이 통하는 순간이다.

특히 '숲 속편'에서 아이유가 긴 머리를 나풀대며 걷고 있는 숲길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는다. 이곳은 붉은 화산송이가 마치 레드카펫처럼 깔린 삼나무 숲으로 제주도 '사려니 숲길'에서 촬영했다. 사려니는 제주도 말로 '신성한 숲' 혹은 '실 따위를 흐트러지지 않게 동그랗게 포개어 감다'라는 뜻이다.

사려니 숲길은 비자림 등과 함께 제주의 숨은 비경 31곳 중 하나로 꼽힌다. 관광객들이 한 번은 꼭 거치는 관광명소다. 오소리, 족제비, 차매, 쇠살모사 등 서식하고 있는 동물도 다양하다.

이 신성한 숲은 2002년 유네스코가 제주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살아있다' 6월 개봉…색다른 유아인이 온다



"대세와 대세의 만남!" '흥행 스타' 유아인이 '대세 장르' 좀비극과 만나 스크린 사냥에 나선다. 그는 6월말 개봉하는 영화 '#살아있다'를 통해 '유아인표 생존기'를 그려나간다.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영화사집

좀비영화 첫 외출 '유아인표 생존극'

'국가부도의 날' 이후 2년만에 복귀
아파트에 고립된 남녀의 생존스릴러
7월 '빅시즌' 앞두고 기선제압 관심

배우 유아인이 처절한 생존극으로 돌아온다. 정체불명의 좀비가 습격하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혼자 남아 위기를 헤쳐가는 이야기로 관객을 찾는다. 요즘 영화와 드라마를 망라하고 '대세 장르'로 꼽히는 좀비물에 처음 도전한 유아인표 생존기이다.

유아인이 6월 말 영화 '#살아있다'(감독 조일형·제작 영화사 집)를 통해 스크린에 돌아온다. 작품을 내놓기는 2018년 영화 '국가부도의 날' 이후 2년 만이다. IMF 외환위기 등 경제 문제를 다룬 전작에서 묵직한 주제의 한계를 딛고 375만 여 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관객을 동원해 흥행에도 성공한 그가 당시 제작진과 다시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흥행을 함께 일군 파트너와의 재회에 따른 시너지도 기대케 한다.

유아인은 이번 영화에서 원인 모를 증세에 시달리는 좀비의 공격에 떠밀려 아파트에 고립된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 초토화된 도시 한 복판에서 데이터도, 와이파이도, 문자메시지나 전화까지 먹통인 가운데 오직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인물을 연기한다. 배우 박신혜가 상대역을 맡아 그의 생존극에 동참한다.

'#살아있다'는 짠내 나는 사투를 내세운 좀비물로 기존 좀비영화들과 차별화를 노리겠다는 각오다. 영화 제목에 해시태그를 붙인 감각적인 시도로 1020세대를 공략하는 점도 눈에 띈다.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 맷 네일러가 쓴 원작을 조일형 감독이 국내 정서에 맞게 각색해 연출했고 그 과정에서 제목도 우리말로 바뀌었다.

홍보마케팅을 담당하는 퍼스트룩의 강효미 대표는 19일 "영문 시나리오의 제목이 '#얼론'이었지만 영화의 의미나 느낌을 확실히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고민 아래 '#살아있다'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과연 오랜만에 스크린에 나선 유아인이 처음 도전한 좀비영화로 기선을 제압할지 여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살아있다'에 이어 좀비영화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당장 7월 여름 빅시즌에는 강동원·이정현 주연의 좀비 블록버스터 '반도'가 개봉한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이태원 클럽 가거나 기부하거나 '코로나 두 풍경'

일부 스타 사회적 거리두기 어겨 눈총
송가인·박명수 등은 지원금 기부 훈훈



송가인



박명수

일부 아이돌 스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아 비난 받는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다. 반면 또 다른 연예인들이 감염병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 기부 행렬을 이어 대조를 이룬다.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유명인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라는 시선이 나온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을 비롯해 세븐틴 민규, NCT127 재현, 아스트로 차은우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던 지난달 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식당과 주점을 찾은 사실이 18일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다. 당초 의혹에 "사생활이다.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이날 실명이 공개되자 뒤늦게 사과했기 때문이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들 역시 관련 검사를 받았지만 2주간 자가 격리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등 방역당국의 권고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재현과 차은우는 19일 SNS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못하고 안일하게 이태원의 식당과 바를 다녀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직접 사과했다.

하지만 대중적 비난이 여전히 잦아들지 않으면서 이들에 대한 방송 하차 요구 등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SBS '인기가요'와 '집사부일체'에 각각 출연 중인 재현과 차은우에 대한 하차 요구가 각 프로그램 게시판 등에서 이어졌다. 또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국이 2018년 9월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함께 받은 화관문화훈장을 회수해 달라는 글이 올랐다. 그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껏 노력한 국민과 의료진의 노력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 배우 김의성과 가수 이승환·송가인, 방송인 박명수·정가은 등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을 기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렵고 절실한"(이승환) 이들을 위해 써 달라는 바람이다. 또 감염병과 맞서는 최전선의 의료진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는 연예인들도 늘고 있다.

19일 한 연예관계자는 "방역 지침을 어긴 아이돌 스타들과 기부 행렬에 나선 연예인들이 빚어낸 두 풍경은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명인들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글로벌 그룹 시크릿넘버 "목표는 그래미 어워즈"

미국·인도네시아 등 4개국 5인조
걸크러쉬 콘셉트 '후 디스?' 공개

"목표는 미국 그래미 어워즈!"

미국(데니스·진희), 일본(레아), 인도네시아(디타), 한국(수담) 등 각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끼 많은 5명의 소녀들이 가요계에 당찬 출사표를 던졌다.

5인조 신인 걸그룹 시크릿넘버가 19일 싱글 음반 '후 디스?'(Who Dis?)를 내고 데뷔했다. 멤버 별 출신지가 달라 데뷔전부터 '글로벌 그룹'으로 주목받은 이들은 이날 서울 압구정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출생지가 다른 멤버들로 구성된 그룹은 아마 우리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국적 그룹'만의 매력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다.

멤버들은 영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뿐 아니라 스페인어, 중국어 등에도 능통하다. 디타의 경우, 인도네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케이팝 그룹 멤버로 데뷔해 현지 언론에 연일 보도될 정도로 고국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그룹은 해외 어디서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려 일찌감치 세계 진출에 대한 가능성도 엿보고 있다.

데니스는 "최근 많은 케이팝 선배 그룹들이 미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 또한 언젠가 미국 그래미 어워즈 무대에서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그룹 시크릿넘버

뚜렷한 개성도 돋보인다. 데니스와 진희는 각각 2016년 SBS 'K팝스타5'와 2018년 엠넷 '프로듀스48'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작곡에도 남다른 재능을 가졌다. 진희는 "100여 곡의 자작곡이 있다. 다음 앨범에는 우리들이 직접 만든 노래를 실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담은 한국 무용을, 디타는 미국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케이팝 무대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해 팀에 합류했다. 레아는 일본에서 이른바 '길거리캐스팅' 제의를 받고 "인생은 '한 방'"이라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 한국으로 날아왔다.

이들의 자유분방한 개성은 '걸크러시'라는 콘셉트 안에 안무와 가사 등을 통해 적절하게 녹여냈다. 에너지 넘치는 고난이도 안무로 채워진 타이틀곡 '후 디스'는 "본인 스타일대로 개성 있게 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여기에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만든 작곡가 멜라니 폰타나 등이 의기투합해 이들에게 힘을 보탰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